

'여성성' 이 여는 새 천년의 지평

포르생 연구소의 《여성적 가치의 선택》을 읽고

이경숙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전세계의 각계 전문가들은 21세기 변화의 흐름을 '여성적 가치 또는 문화적 가치의 선택' 이라고 파악했다. 이것은 그동안 페미니즘의 숙제로 남아 있던 것으로 남성·여성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 즉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이 책은 특히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적 가치의 파급 효과를 생생하게 분석했다.

"21세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은 변화의 시대에 제기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랑스의 포르생 연구소는 세계 63개국의 연구원들을 동원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려고 했으며, 각계 전문가들과 인터뷰해 각계의 구체적인 변화를 감지하고자 했다.

남녀 양성이 공유해야 할 민주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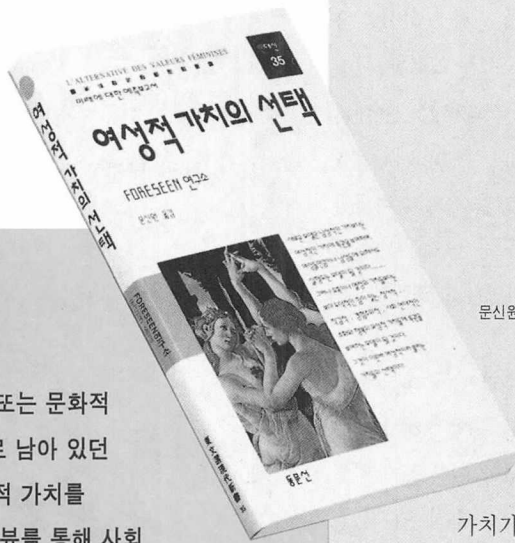
그 결과물의 하나인 《여성적 가치의 선택》(포르생 연구소, 문신원, 동문선)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을 '여성적 가치 또는 문화적 가치의 선택' 이라고 답한다. 여기서 여성적 가치란 남자나 여자라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인' 혹은 '여성적인' 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행동과 행위들을 말한다.

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 의해서도 실행되는 것으로서 도덕적이고 정서적이며 직감적이고 조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들이다. 이런 가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승리라는 대립적 시각을 넘어서 두 성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모색하고,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 산업사회에서 선택한 가치라고 이 책은 밝히고 있다.

세계의 상호연계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왔던 다양한 문제가 전면

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도 문제임을 깨닫게 됐다. 세계가 하나가 됨으로써 이로운 점은 인류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쉽게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며, 좀더 빨리 인류의 문제로 각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그 동안 묵혀왔던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와 마치 인류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성찰의 기회로 다가왔으며,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게 한다. 즉, (모든) 인류에게 좀더 이로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한다.

이 책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지향했고 앞으로도 실행해야 할 일들이 민주적 가치의 실현임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대다수면서 늘 소수였던 여성은 평등하지 못했다. 그런 대다수의 불평등은 민주적 가치의 기본원리에 크게 위배됨에도, 여성의 불평등은 민주적 가치의 실현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것처럼 취급됐다. 비교적 최근 들어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법제화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시작한 여성의 권리들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고 좀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싸웠던 페미니즘은 남성과 대립·갈등하는 것으로 비쳤고, 사회 전체를 이끄는 가치체계를



문신원 옮김/동문선/A5변형/180면/7000원

정립하지 못했다.

이 책은 현재 여성적 가치가 선택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과거에 페미니즘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남성적인 가치들 근처에서 그 통제권을 놓고 싸웠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제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두 성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과 가치체계를 제시해 변화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때임을 밝혔다.

여성적 가치의 파급 효과 살펴

이 책은 여성적인 가치의 실현 역사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지배적 가치는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성적 가치나 이와 대립적인 가치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과거·현재·미래로 나눠 사회학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성적 가치의 실제적 파급효과를 과거·현재·미래로 나눠 그 가치체계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논의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권력 행사, 기업 경영, 과학, 기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나타난 여성적 가치의 파급 효과를 살폈다.

이 책은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변화하는 현실에서 여성적 가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쉽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는 여성적 가치의 선택에 대한 각계의 변화와 본인들의 진솔한 느낌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읽다보면 원어가 불어라는 특성이 책 곳곳에서 느껴져 간혹 불편하기는 하다. ●